

PAPER ART FEST SOFIA 2011

"In Harmony with Nature"

<http://www.amateras.eu/foudation/home.html>

건축가 박병훈(준우건축사사무소 대표)은 5월 14일에 오픈 한 2011 소피아 페이퍼 아트 비엔날레에 참가하였으며, 그린 아키텍처 비엔날레는 5월 26일에 오프닝할 예정이다.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리는 페이퍼 아트 페스트 2011은 지구의 건강과 환경 창출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보여주며 새로운 양질의 환경 미학의 선도를 염두 한 현대 미술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징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11 페이퍼 아트 비엔날레 프로젝트는 특별한 국제 프로젝트로서 종이를 활용한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이며 6대륙 36개국 100명의 작가들이 참가한다. 특히 불가리아 외교부 정면에 설치한 박병훈의 작품은 주최측의 초청으로 한국 건축가로서 유일하게 그린 아키텍처 뿐 만 아니라 아트 비엔날레에도 출품하였다.



1:3 스케일과 1:1 부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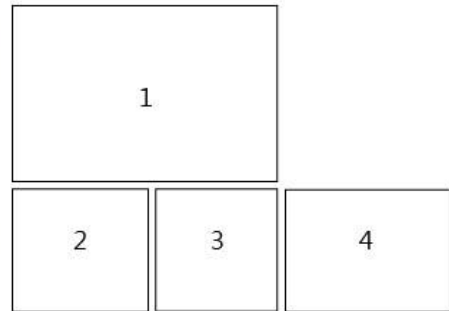


불가리아 외교부 설치작품 'Caterpillar Shelter'

2011 페이퍼 아트 비엔날레 카다록에서 발췌

"2011 소피아 페이퍼 비엔날레의 독특함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친환경 미술과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녹색 과학과 재활용 가능성을 유지하며 환경 문제들과 대화하는 종이의 주된 특징에 있다. 미술 작품들은 지구 환경과 생물학적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기술과 재료들로 구성되어있다. 2011 소피아 페이퍼 페스트의 행사인 그린 아키텍처 비엔날레에서는 재생 가능한 생분해성 소재들과 지속 가능한 건축 디자인들을 볼 수 있다. 박병훈이 디자인 한 지속 가능한 구조물은 좋은 예이다. 이것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빌딩 사이에 통로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자연, 특히 신축성 있고 곡선을 만들어 돌며 공간에 뒤섞이는 애벌레에서 힌트를 얻었다. 사람들은 내부에서 있거나 양쪽에서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재료들은 재생 가능하며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인 종이다."

5월 14일에 열린 이번 전시에서 박병훈은 애벌레를 형상화 한 'Caterpillar Shelter' 작품을 불가리아 외교부 정면 입구에 설치했다. 이 작품은 전통 목조 건축의 접합 기술을 종이 프레임에 적용한 대형 작품으로 환경이 파괴된 지역에 자연 친화적인 새로운 건축과 그린 엔지니어 솔루션이 미치게 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비엔날레 전시 오프닝에서 이루어진 작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정부 인사, 외교부 장관, 각국 대사 및 참석한 모든 일반 관객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1. 불가리아 외교부 건물 전경
 2,3. 건축가 프레젠테이션
 4. 행사 오프닝에서 연설중인 불가리아 외교부 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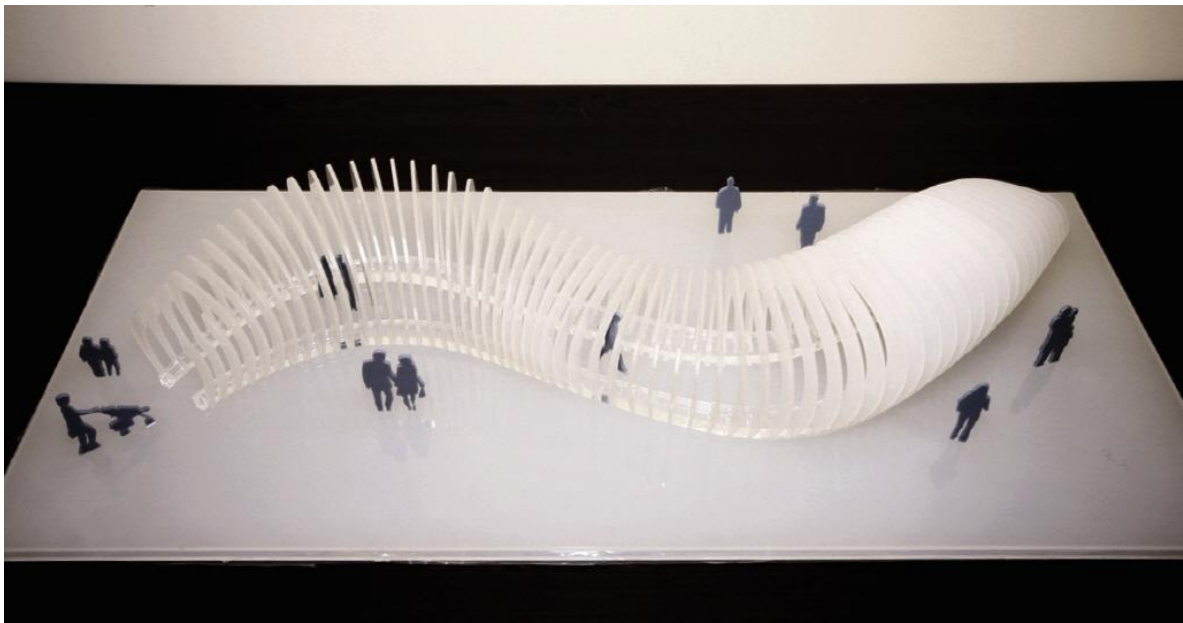
건축가 박병훈은 작고 유연한 애벌레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마디의 유연성을 이용한 커브를 디자인하였고 이 유연함은 설치장소의 상황에 따라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처음 기획한 의도는 공사현장, 재해현장의 안전한 보행자길(페데스트레이션)을 제공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작품은 안전한 길을 가이드 해 줄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달 받고 설 수 있는 쉼터로서 본드나 접합용 볼트, 너트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의 목구조 전통 접합방식인 '끼워맞춤'으로 제작되어 설치가 간편하다.

재료는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중량이 작고 강도가 우수한 골판지를 선택하였다. 또한 골판지는 나무로부터 시작 된 일생 중 가장 마지막 단계로 재활용 된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며 여러 차례 사용 후 목적이 달성될 경우 애벌레 쉼터 자체를 종이로 재활용 할 수 있다. 비록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현장에 간편하게 설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재미있는 쉼터이다."

건축가의 작품 소개

이 작품이 소개된 패널 및 모형은 5월 26일에 오픈 될 2011 그린 아키텍처 비엔날레에 전시 된다.



1:30 스케일 모형

그의 작품에 대해 큐레이터 Thalia Vrachopoulos PhD 는 아래와 같은 글을 소개했다.

"박병훈의 작품은 단순한 건축일 뿐 만 아니라 개념적 예술이다.

비엔날레 카다록에 실은 나의 에세이에서 그는 유일한 개념적 예술 건축가로서 나의 글에 포함된 사람이다. 건축디자이너 브루노 타우트의 유리건축 또는 St. Elia의 구조들과 같은 초현대적인 작품들은 건축이라기보다는 예술의 영역에 가깝다. 그는 건축적인 디자인을 가진 가장 개념적인 예술가중의 한 사람이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건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2011 그린 아키텍처 비엔날레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 된 친환경 녹색 기술과 에너지 절약 회의,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건축 드로잉뿐만 아니라 종이를 이용한 건축 프로젝트가 포함 된다. 인쇄물과 필름 상영, 건축 디자인 스케일 모델도 전시될 것이고, 환경이 파괴된 지역에 새로운 자연친화적인 건축과 그린 엔지니어 솔루션이 미치게 되는 효과 또한 보여주는 전시이다.

이 행사의 조직위원회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Todor Todorov PhD와 국제 큐레이터인 Thalia Vrachopoulos(Tenri Institute의 큐레이터/뉴욕 시립 대학의 존 제이 대학 부교수) Phd, 핀란드 석사인 Liisa Malkamo, 불가리아 큐레이터인 석사 Daniela Todorova 에 의해 조직 되었다. 이들은 'Mini Paper Exhibition' 뿐 아니라 소피아 비엔날레 스폰서인 Amateras Foundation을 2009년에 시작하였다.